

# ( 2012년 오리산업 선진국 연수 수기 )



**정 정 우**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사육분과위원장)

한국오리협회 주최로 매년 늦가을 즈음 개최되는 오리산업 선진국 연수에 필자는 재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참가하게 되었다. 2년 전에는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와 프랑스의 그리므드사를 방문했었고, 올해는 역시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와 네덜란드의 오리농장을 방문했다.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산박람회이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박람회에 이어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니 2년 만에 그 규모와 참가업체 및 참가자들이 더욱 증가했음을 비교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네덜란드의 오리농장 또한 기대되는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11월 11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17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주로 두 나라의 오리 사육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필자는 오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수가 우리나라와 유럽 간 오리 사육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인천공항에서 모인 연수단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오리협회 직원들과 오리 사육, 부화, 계열, 유통 회원들이 다양하게 참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9인의 연수단은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육중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다가올 낮선 땅에 대한 설렘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왔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탓으로 울렁증과 함께 피로감이 밀려오면서 이번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찾아 왔다. 조그만 비행 상자 안에 갇힌 시간은 계속 제 자리만 맴도는 듯 지루한 비행이 끝날 줄 몰랐는데 어느덧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독일 베를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잠깐 독일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면적은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고 인구는 8천만명을 넘는 수준이다. 기후는 온화하고 다습하지만 계절별 일교차가 심하다. 농업현황을 보면 토지이용은 국토면적의 1/2로 경작지가 32.1%, 초지가 14.7%를 차지한다. 특히

농업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생산성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책속에 나온 독일이고, 실제 눈에 들어온 독일 농촌의 풍경은 앵글만 끼우면 그 자체가 한 폭의 풍경화였다. 그야말로 어떤 시름도 없을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독일의 가금 농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그들은 엄격한 축산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만큼 우리나라 농업 기술력이 선진국에 절대 뒤지지 않음을 느끼며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집나오면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 연수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하노버 국제 축산박람회 참관이 기대되었다.

하노버 국제 박람회는 세계 3대 축산 박람회로 꼽힐 정도로 축산분야의 신기술과 새 제품으로 그 전시규모가 가히 세계최고라고 할 수 있다. 축산인이라면 꼭 한번 참관할 만한 곳이다. 복잡한 박람회 장 안에서 우리 연수단 외에도 다른 한국 참관객들을 종종 볼 수 있어 반갑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기자재는 물론이고, 분뇨처리 장치, 가공제품, 운송차량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축산 관련 업체들의 제품을 볼 수 있었다. 박람회장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려면 적어도 2~3일은 걸릴 것 같았다. 빼듯한 연수 일정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연수단은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유럽 가금협회 사무국장장과 간단한 미팅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독일과 유럽 오리 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 유럽 역시 우리나라처럼 오리에 대

한 연구 자료는 타 축종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았다. 유럽 축산의 대세는 친환경이지만 가격차이 때문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일반 제품과 친환경제품의 가격차가 최소 2배까지 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박람회와 유사한 국제농업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지난 10월 전남에서 개최되어 한국오리협회도 참여한 바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축산관련 제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하노버 박람회장은 훨씬 더 전시품이 다양했다.

또 독일의 육가공제품 유통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수단은 대형 마트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번 느낀 것은 우리와는 다른 육가공제품의 다양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리고기의 대부분이 훈제오리, 오리떡갈비, 오리소시지 등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만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독일의 마트에서는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도 회사와 브랜드만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한 제품이지만, 그곳은 제품의 종류 자체가 다양했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필수적으로 수용하고 배워서 다양한 식품개발을 통해 유통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할 것 같다.

하노버의 벽참을 뒤로 하고 우리 연수단의 일정은 후반부로 가고 있었다. 독일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룩셈부르크의 나라 네덜란드로 향했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며, 인구 밀도가 높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특히

국토를 규모 있게 활용하기로 유명하다. 넓고 넓은 평야지에 방풍림처럼 둘러싼 고목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큰 기대를 안고 방문한 네덜란드의 오리 농장은 소 규모라 그런지 시설면에서 우리보다 그다지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국내에도 그러한 시설은 많으며, 오히려 오히려 한국 농장의 시설이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반면, 사육밀도는 우리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100평 정도에 2500수를 사육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동물복지 기준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물복지 기준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60년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법 적용이 엄격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동물복지를 말하며 밀식 사육을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동물복지를 실행한 나라에서 이러한 밀식 사육이 허용된다는 점은 의문이었다.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성과 지역성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유럽의 드넓은 초지를 보면서 지평선 하나

찾기 힘든 우리의 산악지형과는 엄청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몇 년 전 국내에 AI가 발생했을 때, 거리제한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별로 없는 유럽과 비슷한 거리규정을 적용해 국내 축산 농가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럽 연수를 되돌아보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다양한 축산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네덜란드의 작은 국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가히 감탄할 만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 속에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다. 몇 년 사이 급속히 성장한 우리의 오리 사육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의 오리산업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5박 7일 동안 함께 고생하신 연수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오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

